도봉서원서 고려 영국사 혜거국사비 발굴

불교문화재硏, 10월 27일 발굴 현장 설명회

폐사된 사찰 위에 건립된 도봉서원터에서 탁본 일부만 전해졌던 영국사 혜거국사비의 비편이 불교계 문화재 발굴기관에 의해 발굴됐다.

(재)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과 도봉구청(청장 이동진)은 "문화재청의 허가로 조사하고 있는 서울 도봉서원 하층 발굴 현장에서 영국사 혜거국사비의 비편이 발견됐다"고 10월 27일 밝혔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이날 오전 10시 현장 설명회를 열고 발굴결과를 일반에 공개했다.

발굴된 영국사 혜거국사비 비편은 길이 62㎝, 폭 52㎝, 두께 20㎝로 총 281자가 새겨져 있다. 연구소는 이중 256자를 해독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혜거국사비는 선조의 아들이며 서화가인 이우가 편찬한 금석문 탁본집인 〈대동금석서(大東金石書, 1668)〉에 88자의 비문만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발굴과 판독으로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이 확인됐다.

비석 첫 머리 쓰인 '견주도봉산영국사(見州道峯山寧國寺)' 는 지금까지 '영동지륵산영국사' 로 잘못 알려졌던 혜거국사비의 출처를 정확하게 알게 된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영국사 혜거국사(慧炬)가 갈양사 혜거국사(惠居, 고려 최초의 국사)와 동일인물로 혼용돼 왔으나 동시대를 함께한 동명이인인 것도 명확해졌다.

또한, 고려 시대 하층유구에서 확인되는 통일신라의 기와(중판선문 기와)와 건물지 기단으로 보아 영국사가 통일신라 시대에 창건됐음이 확인됐다.

혜거 국사는 고려 전기 법안종풍을 일으킨 10세기 유학승으로 고려 시대 광종이 불교를 개혁하고 선교 양종(禪敎兩宗)을 통합하고자 도입했던 법안종을 고려에 처음으로 전파한 승려로 추정된다. 그리고 법안종을 만든 초조 법안문익(885~958)의 제자이며 적연국사 영준(932~1014)의 스승이다. 또한, 송나라의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에는 국왕이 유학 중인 스님에게 사신을 보내어 예로서 맞이하였던 왕사였으며, 위봉루에서 설법한 사실도 전하고 있다.

탁본만 전해 실물 발굴 처음
비편 문자 256자 해독 성공
영국사 위치 · 창건 시기 확인
혜거국사 동명이인 존재 찾아

도봉서원은 선조 6년(1573년) 조광조(1482~1519)를 추존하기 위해 옛 영국사(寧國寺)의 터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던 곳으로, 임진왜란때 불탔다가 1608년 중건된 후 1871년 서원철폐령으로 폐원됐다. 헐어내기까지 약 260여 년간 유지되었던 서원이다. 지금은 서울특별시기념물 제28호로 지정돼 있다.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진행된 발굴조사 중 도봉서원이 영국사의 일부 건물과 기단을 재활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중심 건물지에서 고려 시대 금속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금동제 금강저와 금강령을 비롯하여 국보급 청동 불교용구가 77점이 출토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도봉서원 발굴 조사 중 출토된 '영국사 혜거국사비' 의 비편. 탁본으로만 확인됐던 혜거국사비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왼쪽 첫 번째) 등 각계 원로들이 한반도 비핵 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종교 · 사회 · 정치 원로들 "한반도 전쟁 NO!"

도법 · 법륜 스님 등 24명 국회서 시국선언

북-미 갈등이 고조되고 한반도 내 군사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종교 · 사회 · 정치 원로들이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하며 나섰다.

도법 · 법륜 스님, 전운찬 前국무총리 등 24인의 각 분야 원로들이 한반도 비핵 평화와 전쟁방지를 기원하며 11월 2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 모였다. 이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공언하고,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가공할 전략무기들을 한반도에 집결시키고 있다"며 "일촉즉발의 위기가 한반도를 감싸고 있다.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야할 때다. 이념과 정파를 초월해 모두가 합심해서 전쟁을 막고 한반도의 비핵 평화를 위해 행동할 때"라고 강조하며 △북한의 미사일개발 즉각 중단 및 조건 없는 대화 협력 △미국의 군사행동 자제 및 대화 위한 노력 △정부의 초당적 협력 체제 구축 및 북한을 설득하고 강제할 외교 역량 발휘 △국회의 '한반도 비핵화 촉구와 전쟁반대 결의안' 채택 △시민사회의 한반도 전쟁방지 및 평화체제 구축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을 촉구했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 김대선 前원불교 평양교구장, 박종화 경동교회 원로목사 등 종교계 11명을 비롯해 김홍신 소설가, 손봉호 나눔국민운동 이사장 등 시민사회계 8명과 김원기 · 임채정 · 정의화 前국회의장, 정운찬 前국무총리, 신경식 前대한민국헌정회장의 정치계 5명 등 총 24인의 원로들이 이름을 올렸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사부대중 함께 건강한 불교를"

자승 스님 퇴임식서 감사인사 · 소회 밝혀

조계종 제33 · 34대 집행부를 이끈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종무원 · 불자들에게 차기 집행부와 더 건강한 불교를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10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열린 퇴임식에서 "앞으로 35대 집행부가 순항할 수 있도록 교구본사, 중앙종회, 신도회 조직 등 사부대중이 함께 불교발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퇴임사를 밝혔다.〈사진〉

자승 스님은 우선 임기 동안 함께 호흡을 맞춘 교역직 · 일반직 종무원을 비롯해 교구본사주지, 중앙종회의원, 전국비구니회 등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주위에서 시원섭섭하지 않은지 묻는데 시원하지만 섭섭한 건 없다. 33 · 34대 집행부를 도운 것처럼 협심해서 더 건강하고, 국민이 원하는 불교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역직 종무원과 중앙신도회, 일반직 종무원들은 자승 스님에게 송별사를 전하며 아쉬움을 표하고, 성실한 종무수행과 정진을 다짐했다.

교역직 종무원은 재무국장 우하 스님이 대표 낭독한 송별사를 통해 "안정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 · 지도해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며 "마주치는 인연을 보듬기 위해 노력하고, 갈등과 혼돈의 시대 속에서 서로 아끼고 칭찬하면서 아름다운 수행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각급 종무기관에서 자승 스님에게 송별선물을 전달했으며, 이석기 前의원의 누나인 이경진 씨가 꽃다발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관계 대표들도 영상메시지를 통해 자승 스님의 퇴임을 축하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1급 승가고시 수석 혜용 · 우석 스님

조계종 교육원 결과 발표



혜용 스님



우석 스님

조계종 1급 승가고시 수석에 前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 혜용 스님(비구), 교육아사리 우석 스님(비구니)이 차지했다.

조계종 고시위원회는 10월 27~28일 경기 김포 중앙승가대에서 '2017년도 1급 및 2급 승가고시' 를 시행했다. 올해 1급 승가고시에는 총 62명이 응시(비구 37명, 비구니 25명)해 전원 합격했다. 혜용 스님(백양사)이 비구 수석, 우석 스님(마곡사)이 비구니 수석의 영예를 차지했다.

1급 고시 비구 수석 혜용 스님은 경기 안성 대원사 주지로 올해 8월까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비구니 수석 우석 스님은 충남 아산 옥련암 총무 소임을 맡고 있으며, 종단 교육아사리이기도 하다.

2급 승가고시에는 총 74명이 응시(비구 40명, 비구니 34명)하여 총 74명의 스님이 합격하였다. 비구 수석에 원학 스님(해인사), 비구니 수석에 혜일 스님(화엄사)이 이름을 올렸다. 수석 합격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은 오는 11월 23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교육원장 집무실에서 진행된다.

신성민 기자

관음종, 일제강점기 징용희생자 위령제

日 사찰 찾아 희생자 위로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은 11월 6일부터 3박4일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희생자 영골 환국사업 일환으로 일본 동경소재 사찰을 방문, 일련종 본문사에 봉안된 희생자 위패 앞에서 추모위령제를 봉행한다.

관음종은 6일 일한불교교류협의회장 후지타 류조 스님을 예방하고, 7일 정토종 · 천태종 · 임제종 대본산을 방문해 취지를 설명했다. 관음종은 이어 9일 일련종 대본산 본문사에서 일제강점기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는 의식을 치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일본인들을 위한 추모기도도 올린다.

김주일 기자

신흥사 운암승려 노후수행관 입주 안내



사회복지법인 운암원에서는
승려 노후복지를 위한 비구니 전용 노후수행관을 개원합니다.
아래의 혜택으로 안내하여 드리오니 문의 바랍니다.

생활 의식주 (사부대중으로서 공동제공)

- 선원, 화엄학림 운영 (서예실, 화실, 도서실, 다실 등)
- 매월 (음, 7일) 원로큰스님 초청법회
- 전기, 상수도, 냉난방 세탁 (무료제공)
- TV 43인치, 드럼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기쿡탑 (제공)
- 생활 필수품 (무료제공)
- 스님 출입시 부산역, 공항, 고속터미널 (승용, 승합 제공)
- 월 1회 온천 및 성지순례 (제공)
- 유선 전화기 기본요금 (무료제공)
- 월 40 ~ 50만원 및 타선원 방부시 대중공양 일백만원 지원
- 수행관 입주자 일반의료비, 중증의료비, 암 치료 등 (무료지원)
- 수행관 내 노후자 편의를 위한 승강기 3대
- 상시 승복(법복) 무료 제공
- 객실 / 실내 도반과 함께 입주 가능
- 승납(법납) 및 세속나이 관계없이 1차 입주는 가능함
- 수행관 주변 : 백병원(종합) 승용 3분거리 / 지하철 도보 10분 / 시내버스 종점 도보 3분거리 / 공원, 대학, 고등학교, 산책로
- 남덕유산 무위사 심신수련원 매년 거주(한철)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등록예정)
- 사후 사찰내 식장, 무위사 다비장 부도탑 49재, 사중제사 (단, 유언장에 따라 정리함)
- 입주자 : 전국 비구니스님 (60세 외 관계없이 가능)

· 개관 : 2017년 12월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주지 정일 성범 합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77-20
사찰전화 : 051-891-3776
문의전화 : 051-895-3400. 010-6783-1208